

# 高麗寫經의 研究

黃 壽 永

(東國大學校)

## 〈目 次〉

- |              |                 |
|--------------|-----------------|
| I. 序         | III. 맺는 말       |
| II. 高麗寫經의 新例 | 〔附〕 新羅寫經의 新例 三種 |

## I. 序

우리나라 寫經의 역사는 佛敎初傳과 때를 같이하여 왔다고 추정되므로 그시간의 長久함과 불교의 盛衰에 따라서 사경의 역사 또한 변천을 거듭하여 왔던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寫經의 長久한 역사를 말하나 物的造形에 있어서는 그 主要資料가 종이(紙類)인 까닭에 古代의 작품은 일찌기 소멸되었고 현존하는 유품의 上限을 대략 고려下代 서기 13,4세기로 생각하여 왔다. 이같은 現存品의 上限은 國內에 있어서뿐 아니라 日本國內에서 傳來하는 우리의 古代 寫經에서도 高麗一代를 더 오르지 못하였었다. 日本에서 最高品으로는 다음의 것을 지목하여 왔다.

品名：大寶積經 卷三十二 一軸

年代：統和二十四年七月(고려 穆宗9年 서기 1006年)

이 在日 一軸은 卷首의 變相圖 그리고 卷尾의 識記등이 구비되어 있는 紺紙金字의 卷軸本으로서 특히 識記에 의하여 이것이 「金字大藏經」의 하나임과 그 寫成이 당시의 王太后 皇甫氏와 權臣 金致陽과의 「同心發願」임이 注目되기도 하였다. 그외에도 日本에는 우리의 金·銀字大藏經의 殘軸을 필두로 法華經·華嚴經 등의 金銀本 이외에도 墨書經이 또한 적지 않아서 日本全國의 神社나 佛寺 등에서 전래하고 있으며 一部는 博物館이나 個人의 소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도리어 국내보다는 日本에서 古代寫經의 各種本을 볼 수 있었으며 더우기 多幸한 것은 국내와 달리 保存이 良好하며 散佚이 아니되어서 그사이 필자는 法華經 全七卷의 銀字本 또는 白紙墨書本의 類例를 조사한 바도 있었다. 그중의 一本은 일찌기 우리나라 全南 靈巖郡 月出山의 道岬寺에서 전래하던 妙法蓮法經 全七册은 日帝期에 日本으로 搬出되어서 二次大戰後 東京在住 우리 僑胞 張錫氏가 入手하였었다. 그후 1969年 2月 다시 在日僑胞實業家 金大鉉氏가 이를 購入하여 本國政府에

寄贈하므로써 다시 還國하게 되었었는데 그 직후에 國寶指定이 되어서 오늘 國立博物館에 陳列함에 이르렀다. 이 寫經은 洪武年의 跋記가 第七卷末에 있어서 高麗末의 寫成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月出山 또는 道岬寺 같은 山號와 寺名이 背後에 墨書되어 있어서 그 유래가 분명하다. 이와같이 고려의 現存寫經은 國內뿐 아니라 日本에서 多數 전래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研究는 도리어 日本에서 새로운 遺品을 발견하므로써 未知의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高麗史같은 文獻에서만 推定되던 金銀字로 사성된 大藏經事業이 日本에서 初見된 遺品으로서 비로소 그 注目과 研究가 着手되었고 나아가 國內에서도 처음 發見되는 契機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새로운 知見은 비단 寫經뿐 아니라 고려의 佛畫같은 것도 또한 同一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 國內寺院에서는 오늘 單一件의 고려佛畫를 찾을 수 없는 우리 現實에 비추어 日本에서는 약 一百件의 高麗와 朝鮮朝初期의 佛畫가 日本各地에서 傳來한 사실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日本 奈良의 大和文華館에서는 近年에 高麗佛畫展을 개최하여서 그중 一部를 전시한바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를 開眼케 한 하나의 契機가 되었고 나아가 그같은 注目が 數幅의 民間品을 巨金으로 購入還國케 한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龍仁 湖岩美術館의 고려 아미타삼존도(국보)나 동 觀音圖와 地藏菩薩圖(이상 寶物) 또는 湖林博物館의 地藏圖 같은 것이 모두 上記한 展示會 이후 日本에서 入手된 것들이다. 이와같이 國內에서 전혀 자취를 감추어버린 古代의 美術文化가 바다 건너 日本에서 전래하여서 오늘 逆流되고 있는 現象은 우리의 잃었던 空白을 메꾸며 옛 榮光을 다시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들 우리의 古文化財가 高麗末의 왜구와 壬亂의 收奪로 搬出되었고 또 今世紀에 들어 日本統治期에 渡去된 것이 틀림없으나 그들 一部의 還國 또는 그들의 관한 學術的 資料의 確保는 우리의 古美術研究를 위하여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國內에서 對外搬出되어서는 아니될 重要遺品의 保存策의 強化와 並行하여서 在外文化財에 대한 關心과 나아가 重要作品의 新發見은 이 部門에 留意하는 當局이나 個人에 의하여 앞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우리 古代寫經의 역사를 더듬는 努力에서 우리는 日本에서 큰 成果를 얻게 될 것으로 期待할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日本에는 正倉院같은 世界에 알려진 古代美術品을 비롯한 文書類의 寶庫가 있으며 上代에 오르는 白紙墨書經의 遺例가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의 斷切期를 더듬는 資料가 또한 그같은 곳에서 얻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今年에 別世하신 趙明基博士가 老年에 이르러 자주 日本各地를 旅行하면서 신라의 書冊을 探索하신 勞苦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國內에서 滅種된 品目이 他國에서 延命되고 있다면 이것을 거두어 밝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필자 또한 韓日會談에 관여한 이래 이 部門에 특히 유의하면서 新發見을 期待하여온 까닭은 그곳에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作品과 새로운 사실이 전래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그같은 노력이 때로는 매우 큰 成果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最近年에 國內에서 주로 佛腹藏品중에서 일찌기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하였던 고려 顯宗代의 大藏經本 소위 初彫本의 發見이나 新羅時代 寫經의 發見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新羅寫經은 解放후 最近年에 이르기까지 國內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通念化 되어 왔다. 그러나 今日에 이르러서는 1978년에 발견된 白紙墨書의 華嚴經 二軸(국보 169號, 湖岩

美術館所藏) 이외에도 數例를 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국내에서 확보되어 있는 사실은 또한 多幸한 일이다. 本論의 附錄으로 이들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 II. 고려사경의 新例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사경의 新例는 국내에서 單卷으로 조사된 것이 通例라하겠으나 近年에 이르러 佛寺에서 佛菩薩腹藏品으로 추정되는 一括品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같은 先例로서는 일찌기 필자가 수습하여 동국대박물관으로 옮긴 경기도 安城 淸源寺사경이 있어 그 內容을 發表한 바 있었다. 동시에 이와 전후하여서 충남 天原郡 廣德寺에서 전래하던 고려사경을 또한 東國大博物館으로 옮기는 동시에 문화재지정을 받은 바도 있었다. 이와같은 兩件이후에 있어서 고려사경의 一括品이 다시 수습된 바 있는데 그 하나는 서울 湖林博物館에 收藏되었으며 他一例는 경북 월성군 양북면 祇林寺本尊의 腹藏品으로 調査되어 모두 文化財指定이 完了되었기에 本論에서는 이들 新例二例를 간략하게 이곳에 소개하여 두고저 하며 그외의 單卷의 예는 數三例이외는 다른 기회를 얻고 一括하고저 한다. 고려사경에 대하여서는 이미 대구 효성여대의 權熹耕교수에 의하여 『高麗寫經의 研究』가 수년전에 간행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 [A] 서울 湖林博物館수장 고려사경…

상기와 같이 이 사경들은 최근년에 수장된 것으로 그들이 腹藏品으로 추정될 뿐 傳來寺院이나 收拾경위에 대하여서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 (1) 국보 白紙墨書 妙法蓮華經 全7冊

이 사경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完秩의 7冊 法華經으로서 日本 東京에서 購入된 것인바 일찌기 古物商人의 손에서 在日僑胞 故 張錫씨가 入手하였던 것이다. 末卷에 보이는 跋記에 의하여 寫成年代뿐 아니라 日本으로 건너간 年代와 경위가 짐작되기도 한다. 全秩本은 귀국후 1984年 5月에 국보 제 211號로 지정되어 진열되었다.

金泥界線에 各面6行 各行16字. 7卷末에 識記 10行이 墨書되어 있어 다음과 같다.

特爲

先妣鐵城郡夫人李氏靈魂超生極  
樂世界面奉  
彌施親受記別證一切智又願父重大  
匡晉城君河氏 寶體延壽保安  
當生淨土請佛護主法德蘭敬寫妙  
法蓮華經一部流通永祀作法供

養福資 恩有者

宣光七年丁巳十一月 日

功德主前斷俗大禪師 元珪

嘉吉三年二月吉日奉籠(朱書)本願堯海

慶長十年七夕

松尾大明神 西西廣大院僧正敬白

(末尾三行은 渡日後에 墨 또는 朱書됨)

이 國寶經은 上記 張氏에 의하여 保護되어오다가 別世 후의 遺志에 따라 歸國된 것은 그가 收集한 高麗寫經數件과 함께 特記되어야 할 것이다.

(2) 紺紙銀泥 大方廣佛華嚴經 卷34. 1册(보물751號)(圖 1).

貞元本으로 金泥變相圖가 있으며 체제는 卷子本으로 1行 17字이다. 上下에 金泥單線이 있으며 天地 31.1cm, 表紙에는 金銀泥 唐草紋이 그려져 있다. 跋記가 있어 다음과 같다.

風調雨順國泰民安

佛日增輝法輪常轉者

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 指空

至正丁酉潤九月 日 誌

持經主 戒衍

施主者 崔迪 一莊

同願金 清戒心

同願書寫

文殊最上乘無生戒法

皇帝聖壽萬歲

太子諸王壽等千秋

國王殿下福壽無疆 文武官僚高祿位天下太平

(3)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 1册(보물 752號)

紺紙金泥로서 折帖本이다. 各面六行 各行 17字 楷字이다. 卷首에 變相圖가 있고 識記는 이보다 앞서서 表紙 바로 뒷면에 金書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資善大夫將作院使安 賽罕

切念荷父母訓育之恩

皇帝

皇太后 舍人太子眷遇之德獲事

兩宮位階二品永懷同極佞感寸誠於是鑲金寫成

大華嚴經一部凡八十一卷爰仗

佛乘祈

天永年伏願

乾坤比於覆燾日月並於昭臨家國咸寧人神均慶

元統二年甲戌九月 日誌

(正統2年은 고려 충숙왕 후30年 서기 1334年이다)

(4)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1册(보물 753號)

白紙金泥本 折帖으로 卷首에 變相圖가 있다. 各面의 세로 25.6cm 가로 11.1cm.

끝으로 五面에 「文殊最上乘無生戒法」이 쓰여져 있고 裏面에는 「六祖和尚法寶壇經合部」가 쓰여져 있다. 識語는 다음과 같다.

將此成功德圓滿上報  
佛祖之恩下濟二塗之苦  
端爲  
祝延  
當今主上壽萬歲  
公主  
王后壽齊年十方檀信增福壽風調雨順  
國泰民安  
佛日增輝法輪常轉者

(5) 大方廣佛華嚴經 卷37(周本)(보물 754號)

紺紙銀泥이며 折帖本이다. 各面 6行으로 各行 17字이다. 上下에 單線金泥가 그어져 있다.

(6) 大方廣佛華嚴經 第5·6(周本) 1册(보물 755號)

紺紙銀泥經인바 各卷首의 變相圖는 金泥로써 하였으며 表紙 또한 金銀泥로 寶相華紋을 그렸다. 折帖本으로서 1面 6行 各行17字이다.

(7) 大佛頂首楞嚴經 卷7, 1册(보물 756號) (圖 2).

紺紙金泥本으로 表紙는 金銀泥의 寶相華紋을 그렸다. 折帖本으로 各面6行 各行 17字이다. 上下 金線으로 하였다.

## [B] 祇林寺 고려사경

1986年 9月 6日 경북 월성군 양북면 기림사에 심야 문화재 도굴범이 침입하여 本殿인 大寂光殿의 소조 毘盧舍那삼존상 중에서 중앙에 위치한 본존불을 파손하여 복장된 불교전적을一括하며 도취코저 하였다. 다행하게도 사찰측에 발각되어 장품을 유기하고 도주하였기에 그 전부를 다시 회수할 수가 있었다. 필자는 그 직후 진흥섭위원과 같이 현지에 출장하여 피해상황과 회수된 전적류를 조사한 바 있었다. 그 직후 사원에서는 보관장소를 경내에 새로 마련하고 그 전적류의 가

치를 당국에서 감정하여주기를 요청함에 임창순·천혜봉 문화재위원과 박상국 동전문위원이 참가하여 그들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에 따라 同年 8月 3日에 指定審議小委가 개최되었으며 이어서 8月 17日에는 指定위원회가 개최됨에 이르러 木板本 불교전적과 고려사경류가 보물로 지정가결됨에 이르렀다. 祇林寺는 삼국말기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는 古刹로서 그 寺格이 매우 높았다. 이곳 主尊年代는 朝鮮前期作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前代末의 典籍類를 多數 腹藏한 사실이 또한 수증되는바 있다. 이하 상기한 八月作成된 文化財管理局의 「祇林寺毘盧舍那佛腹藏典籍調查報告書(千惠鳳·朴相國)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초기함에 그치고자 한다. 다만 이 보고서의 種別目錄에는 「고려시대사경」으로 合計 14種을 들고 있으나 本文目次에는 그중 10種만을 들어 해설하고 있으며 殘餘 4種은 缺本이라 하여 目次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종별은 다음과 같다.

橡紙金泥 法華經 卷七	고려말
白紙金泥 法華經 變相圖	고려말
橡紙銀泥 大般若經 卷四六八	고려말
紺紙金泥 大方廣佛華嚴經	고려말

다음에 本文에서 圖版을 싣고 해설하고 있는 高麗寫經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橡紙銀泥 大般若經 卷210

1卷1帖, 表紙는 紺紙에 金泥의 寶相華紋이 그려져 있고 그 중앙에는 金泥로 經名이 筆書되어 있다. 卷首題下의 「秋」字는 千字函의 表示이다. 形式은 折帖裝이며 各面 6行 各行17字이다. 卷末에

戊子(1348年 忠穆王4年)四月二十二日書

라 보이고 있어 이 사경의 書寫年代를 精確하게 가르키고 있다.

이 경은 大般若經 600卷 중의 제210권이다. 上記한 千字函 表示로 보아서 이 사경은 고려의 銀字寫經院에서 이루어진 銀字大藏經중의 하나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銀字大藏의 他例와 같이 확실한 年代와 「高麗國王發願」 등의 文字가 아니보이는 것은 그들과 差別이 있어서의 일이나 未詳이다. 報告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 寫經은 本文 글씨나 表紙紋樣 등에 보이는 사경의 品格이 忠烈王 때 이루어진 銀字大藏經에 比해서는 훨씬 떨어지나 이 당시에 또 다시 銀字大藏經의 寫成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2) 橡紙銀泥 大般若經 卷259

1卷1帖. 表紙는 (1)과 同一하나 뒷 表紙는 脫落되어 있다. 卷首尾에 千字函表示로서 「餘」字가 보이고 있다. 折帖裝으로 크기는 31×11.7cm이다(圖 3). 앞의 卷210과 表紙紋樣이 다소 다르고 글씨 또한 同一人의 것으로는 아니 보인다. 그러나 전체의 品格으로 보아서 같은 시기에 銀字院에서 제작된 銀字大藏의 하나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3) 橡紙銀泥 大般若經 卷561

表紙 앞뒤가 破損되어 있으나 대체의 약식에서 보아 上記한 (1), (2)와 大同小異하다. 折帖裝으로 1卷1帖이며 各面6行 各行 17字이다. 千字函表示로는 「果」字가 보이고 있다. 크기는 31×11.6cm.

대체로 보아서 上記한 大般若經 2卷과 같은 시기에 銀字大藏院에서 사성된 고려 은자대장경의 1卷으로 추정될만하다.

(4) 橡紙銀泥 放光般若波羅蜜經 卷12, 無羅叉·竺叔蘭(西晋) 共譯. 1卷1帖.

表紙가 脫落되었고 卷首의 1部가 훼손되어 있다. 卷首下에 千字函표시인 「重」字가 보이고 있다. 折帖裝으로 크기는 31×11.2cm. 全20卷중의 卷12인데 上記한 大般若經과 비교하여 紙質이나 書體 등에서 미루어 같은 시기에 사성된 銀字寫經院의 銀字大藏으로 추정된다.

(5) 橡紙銀泥 佛說大方廣十輪經 卷5

失譯經으로 1卷1帖인데 他品과 같이 上下에 銀泥單邊이 있고 上下面은 21.2cm이다. 銀泥有界하며 各面 6行 各行은 17字의 通式을 따르고 있다.

表紙는 紺紙에 金銀泥로 寶相華紋이 그려져있고 一部과손되어 있다. 그리고 卷首下에는 千字函 표시인 「吊」字가 보인다. 折帖裝으로 크기는 31×11.2cm. 8卷중 제5卷인데 表紙의 양식이나 本文의 글씨 또는 千字函 표시 등에서 미루어 1348년에 書寫된 大般若經과 이어지는 시기에 銀字院에서 제작된 銀字大藏經의 하나로 보인다.

(6) 紫紙銀泥 等集衆德三昧經 卷下

西晋 竺法護譯. 1卷1帖. 上下에 銀泥單邊. 상하間21cm. 銀泥有界이며 全葉에 42行 各行은 17字임. 張크기는 30.5×75.2cm으로 11張이 연결되어 있다.

표지는 通式을 따라 金銀泥로서 寶相華紋을 그렸는데 그중양에 金泥雙線의 長方形 안에는 鶴立蛇橫의 表示와 表題가 金泥로 쓰여 있다. 전체적으로 습기를 입은 흔적이 있으며 앞 표자의 가장 자리는 훼손되었고 뒷표지는 탈락되었다. 卷首題 아래에는 「及」字의 千字函次表示가 있다.

形式은 折帖裝이며 크기는 30.5×11cm. 三卷中の 下卷인데 個人發願이 아니며 大藏經으로 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1348年の 大般若經(1~3)과 같이 銀字寫經院에서 사성된 銀字大藏의 하나로 추정된다.

(7) 白紙金泥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佛陀波利(唐)譯

1卷1帖으로 上下에는 金泥單邊을 그렸으며 上下間은 19cm이다. 金泥로 界線을 그렸으며 全葉에 25行 各行 17字이다. 1張의 크기는 31×56.5cm인데 18張이 연결되어 있다.

表紙는 紺紙바탕에 金銀泥의 寶相華紋이 그려졌으며 그 중앙에는 金泥로서 經牌形을 그린 속에 經名이 또한 金泥로 1行이 필사되어 있다. 전체가 누습으로 오염되었고 蟲害로 여러곳이 훼손되

어 있다. 形式은 帖裝이며 크기는 31×11.3cm이다. 卷末에 다음과 같은 관련인명이 보이고 있다.

大功德王  
忠勤翊贊功臣□□城君鄭□□  
推忠翊祚功臣匡靖大夫前  
知門下事上護軍 金庾  
月城郡夫人 金氏  
輪忠輔理功臣重大匡端城軍崔公哲  
原州郡夫人 李氏 通州  
子 安國  
奉翊大夫前典工判書吳仲華  
夫人 權氏

寫成年은 아니보이나 이같은 卷末의 기록에 따르면 忠勤翊贊功臣 鄭某氏와 上護軍 金庾, 月城郡夫人 金氏, 端城軍崔公哲 前典工判書 吳仲華등의 施主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功德主 金庾는 고려 恭愍王18年(1369)에 知門下府事로 지내다가 恭讓王 元年(1389)까지 生存한 사람이고 吳仲華는 恭愍王 20年(1371)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경은 恭愍王 19年(1370)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8) 椽紙銀泥 大方廣佛華嚴經 卷25

佛馱跋陀羅(東晉)譯 獻 瑪

1卷1帖으로 上下金泥單邊 上下間 20.8cm, 金泥有界 金葉 30行 各行17字, 各張크기 31.2×60.7cm, 19張이 연결되었는데 그중 제7.8 두장이 缺失.

표지는 紺色바탕에 金銀泥로서 寶相華紋이 그려져 있다. 앞 표지의 중앙에는 金泥로 經牌形을 그리고 그 안에 鶴立蛇橫의 표시와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五晉三」의 表題가 金泥로 쓰여져 있다. 전체로 여러곳에 누습의 흔적이 보이고 左下段은 일부 훼손되어 있다.

晉本 60卷 가운데 第25卷이다. 寫成記가 없어 확실한 年代 등을 알 수는 없으나 표지의 양식이나 本文 글씨 등에서 미루어 고려말기의 사경으로 추정된다.

(9) 紺紙銀泥 妙法蓮華經 卷第2

鳩摩羅什(後秦)譯.

1卷1帖, 上下金泥單邊, 上下間 21.5cm, 銀泥有界, 全葉42行 各行마다 17字이다. 張의 크기 31.9cm×77cm로서 5張이 연결되어 있다.

表紙는 脫落되었고 本文은 누습된 흔적이 남아 있다. 形式은 帖裝으로 크기는 31.9×11cm이다.

7卷가운데 제2卷이다. 本文내용이 兩面에 걸쳐서 필사되었으며 紙質과 글씨 등으로 보아서 고려말기의 사경으로 추정된다.

(10) 紺紙金泥 妙法蓮華經 卷6

鳩摩羅什(後秦)譯

1卷1帖. 上下單邊 上下間 20.8cm. 全葉36行 各行17字. 張의 크기 29×65cm로서 18帳이 연결되었다. 形式은 帖裝이며 크기는 29×11cm.

表紙와 卷末부분이 脫落되어서 不完全하다. 그러나 報告書는 다음과 같이 이 사경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

本文글씨의 세련됨이나 金泥의 찬란함이 고려시대 金泥로 寫成된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寫經으로 評價된다. 寫成年代는 14세기 중반으로 보인다.

[C] 個人藏 新例

고려사경으로서 民間에 收藏된 種別과 數量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서는 계속 留意하여와서 民間收藏品이 옛날에 비하여 증대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最近年에 이르러 고려사경에 각별하게 注目하는 人士도 있었고 또는 당국의 民間典籍의 調査를 통하여 새롭게 밝혀진 것도 있어서 앞으로 불완전하나마 그들을 한 곳에 모으려는 까닭이다.

(1) 李元基氏 所藏 高麗寫經

○ 椽紙 銀泥 妙法蓮華經(卷第5~6) 2卷1帖으로된 이 作品은 帖裝本으로 楮紙이며 크기는 세로 30.6 가로 11.2cm이다.

上下金泥單邊이며 上下間 20cm 金泥有界 全葉 30行 各行 17字이다. 表紙는 金泥로된 經牌形 안에 表題가 金書되어있고 그 둘레에 金銀泥로 寶相華紋을 그리고 있다. 變相圖는 생략되었고 跋文도 없으나 앞뒤의 表紙만은 完全하다. 그리하여 形式과 장엄, 字形 등으로 미루어 고려사경의 전성기인 14세기의 고려사경으로 추정되었다.

(2) 李華均 소장

○ 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크기는 가로 17.5×세로 6.7cm. 帖裝本 1帖으로 고려末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上下銀泥單邊. 上下間 12.2cm. 無界 1折 7行 15字. 卷首에 變相圖가 金泥로 그려져 있고 經文은 앞뒤에 사경되어 있다. 表紙는 金·銀泥의 寶相華紋을 그렸고 중앙에 銀泥로 經名이 필사되어 있다.

일반품과는 달리 小形으로 15字本이며 앞뒤로 필사되어 있어 휴대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卷末에는 臺翁和尚示衆 永嘉和尚發願이 실려 있고 「幹士大然成經所懷書于經末」이라하여 大然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戒經, 話頭, 發願, 祝上의 順으로 寫成所懷를 적고 「施主前奉列 大夫司僕少卿 黃知命 中原郡否認劉氏」라고 시주자가 밝혀져 있다.

(3) 大一社 소장 고려사경

○ 椽紙銀泥 大智度論 卷第28

折帖本으로서 表紙는 脫落되었으며 經文도 卷首의 第1面부터 第12面 그리고 第19面부터 28面까지 脫落되어 있다. 따라서 現存面은 13에서 18, 29에서 38면과 裏紙이다. 各面마다 6行 行17字 銀泥經으로 上下雙邊이며 界線이 있다. 跋記나 變相圖는 없는데 腹藏品으로 추정될 뿐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크기는 31×11.3cm(1988年 11月 10日 서울 長安坪)

(4) 朴興慶 소장

○ 紺紙金泥 至正26年銘 妙法蓮華經. 卷第7

1帖1卷 折帖裝. 크기 31.5×11cm. 全葉 30行 17字. 第1,2丈이 表紙와 같이 缺失된 이외에는 完全하며 第16丈 끝에 識記가 있어 다음과 같다.

夫此妙典文字非外色香皆中非離  
器求金也是故信則利那成佛謗則墮  
於泥犁昔慧恭之敬誦一部遂感天  
花亂墜山龍之唱首題名而使地獄  
皆空瀨心披經唯見黃紙了無一字  
今愚雖未若思齊之心但發難遭  
之相故敬寫一部特爲先  
父累劫親緣超生淨土云耳  
至正二十六年丙午九月日鳳停留鎮

施主

都評議錄事典農直長權 圖南  
借巡衛精勇別將 權 仁達  
司醞直長同正權 有成  
司醞直長同正權 數奴  
道人 戒珠  
道人 世昂

識語는 3面に 金泥로 필사되었으며 뒷 表紙에는 金銀泥로 寶相花紋이 그려져 있다. 이곳에 보이는 至正26年 丙午는 고려 恭愍王15年 서기 1366년에 해당된다.

上下에 金泥單邊이며 界線이 없으며 上下間은 21cm이다. 고려말에 發願寫成된 金字經의 一例이다.

### Ⅲ. 맺는 말

고려사경의 研究는 먼저 日政期에 日本人學者에 의한 論文이 있다. 그리고 일찌기 日本에 流傳된 遺品들이 佛寺神社 등에서 保存되어 왔으며 또는 民間으로 流出되어 個人 혹은 博物館 같은

곳에 수장됨에 따라 주목된 것도 많다. 한편 國內에 있어서는 古代寺刹 등에서 散逸된 零本이 드물게 발견되어서 民間에 流出되기도 하였으나 그 數는 매우 드물고 種別 또한 法華·華嚴·金剛經 등의 散逸本이었다. 그러므로 韓末에 來韓하여 古蹟調査를 담당하였던 日本의 關野 貞 博士는 全秩로서 오직 全南 道岬寺에서 銀泥法華經 全7冊을 發見하고 國內唯一件의 傳來品이라 하여 그 保存에 대한 特別保護를 當局에 建議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이 唯一遺品조차도 日政期에 寺刹에서 流出하여 日本人 손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日本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필자가 1960年代初에 日本 東京에서 僑胞 故 張錫씨로부터 이 現品을 提示받고 驚喜한바 있었다. 그것은 해방후 上記한 關野博士의 報文에 따라서 필자는 이 法華經의 行方을 알고져 道岬寺를 찾아서 問議한 바가 있었고 그후에도 國內에서 그 출현을 기대하여오다가 의외로 日本 東京에서 初面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후 이 一件의 還國을 위하여 그곳 同鄉의 實業人인 金大鉉氏에게 勸告하여 巨金으로 購入하여 駐日大使館을 통하여 國立博物館에 寄贈함에 이르렀다. 그전후 張氏가 日本에서 蒐集한 法華經 全7卷 完秩本 2件 등 또한 각각 國內로 돌아와 오늘 모두 國寶로 지정되어서 私立博物館에 永久保存된 것은 돌이켜 큰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들 完秩本の 歸國이 있기까지는 國內에 高麗寫經의 完本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에 이어서 高麗國王發願의 銀字大藏經本이 마침내 入手되어 還國한 일 또한 日本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일에 이어서 國內에서도 같은 銀字大藏本이 처음 安城 淸源寺腹藏에서 出現함에 이르렀다(東國大博物館). 이와 관련하여서 金字大藏經의 遺例는 그 사이 國內外에서 그 實物이 전혀 注目되지 않았다. 그러나 最近年에 이르러 그 一例가 北京故官博物館에 出品되어있는 사실을 日本九州大 菊竹淳一教授의 敎示에 따라서 처음 알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日本民間에 이 金字大藏의 最末尾의 本文과 그에 이어서 跋文만이 남아있었다. 또한 競賣되어서 현재 日本 姫路市 居住 在日僑胞가 入手하였다. 필자는 이 現品을 奈良大和文華館에서 처음 相對하고 그 完品을 장차 中國에서 기대하게 된 것을 또한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려사경의 연구는 國王發願의 金銀字大藏經의 寫成事業으로서 그 絶頂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金銀字大藏所 같은 特別機構의 설치는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려下代에 이르러 元朝의 요구에 따라서 寫經僧 多數의 入元事實이나 金剛山같은 곳에서 그들의 要求에 따르던 寫經事業 등 우리 文化史上 가장 光輝있던 업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해방후에 이르러 故 安啓賢敎授가 이 部門에 주목하여서 몇차례 논문을 발표하여준 것은 선생의 慧眼을 통하여서였다.

이와 동시에 日本全土에 주로 麗末 또는 壬亂全期를 통하여 日本으로 건너간 고려寫經의 遺品이 오늘 우리의 想像을 넘어서 數量이나 種別에서 注目하여야 할 것이 전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상기와 같이 流出된 現品의 購入은 주로 商人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公的機關에 保管된 것에 대하여서는 그 實物을 찾아서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奈良 大和文華館의 展示는 우리에게 그 뜻이 컸다고 하겠다. 이같은 初有의 展示가 하나의 契機가 되어서 그사이 所在를 모르던 遺品이 알려졌고 그 資料의 集成을 위하여 우리의 노력이 비롯하였다. 상기한 權熹耕女史의 『高麗寫經의 研究』의 출판은 그 첫 성과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60年代 이후 佛教文化財에 대한 주목이 增大됨을 따라서 고려의 유품이 주목 되었으며 간혹 드물게는 新羅의 寫經도 출현하여 우리를 놀라게도 하였다. 民間所藏인 국보 白紙 墨書 華嚴經 2軸(湖岩美術館)같은 것은 모두 跋記를 지니는 遺品으로서 寫成을 위한 用紙나 書蹟 이나 裝幀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忘却하였던 世界에의 引導였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작년末 이 국보 華嚴經 1軸의 保存修理를 위하여 來韓하였던 京都博物館所在修理센터의 岡氏의 讚辭는 결코 誇張된 것이 아니다. 고려사경에 대한 우리의 研究는 이제 그 始發에 있다. 지난날의 文化의 빛 이 모두 사라졌다하더라도 오늘 국내외에서 전래하는 零細한 자료에서 그 復元의 노력이 진행 된다면 이 고려의 寫經事業에서 우리는 잃었던 金字塔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1) 拙稿：新羅·高麗寫經의 一考察(黃壽永編, 「韓國佛教美術史論」收錄, 서울 民族社, 1987年 10月刊 參照).

## [附] 新羅寫經의 新例 三種

6·25戰亂이 끝나 戰火는 멎었으나 국내 치안이 안정을 얻지를 못하던 1950年後半으로부터 1960年에서 1970年代에 이르는 戰後期間에 국내에서는 地上과 地下를 가질 것 없이 盜掘이 유행하였다. 한때는 成群한 盜掘輩가 전국을 무대로 無主의 寺址에서 나아가 現存寺院의 마당 또는 그 주변에 배치된 石塔 또는 僧塔(俗稱으로 浮屠)을 目標로 삼았다. 뒤에 그들이 一綱打盡되어서 押收된 舍利具중에는 신라 皇龍寺刹柱本記를 記刻하고 多數의 舍利器와 그 壯嚴具를 內藏한 大小二種의 舍利內外函이 있었고 內函四面에는 모두 一千字에 가까운 「刹柱本記」의 全文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안에 포함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신라 寫經은 하나도 發見되지 않았고 다만 寫經을 장치하였다는 記事만을 判讀할 수가 있었다.

其中更依無垢淨經置小石塔九十九  
軀每軀納 舍利一枚陀羅尼四種經  
一卷卷上安 舍利一具於鐵盤之上(第3板內面)

이곳에 보이는 「陀羅尼四種經一卷」이 과연 墨書된 사경인지 또는 木版印刷된 것인지 그에 대하여서는 判定할 수가 없다. 여하간 造塔業이 크게 유행한 신라統一盛期(7~9세기)에 있어서 建塔과 無垢淨光陀羅尼經과의 불가분의 關係에서 新羅經文으로서는 塔內에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奉安되었던지 또는 그 經에 의거하여 建塔이 이루어진 사실만은 의심할 餘地가 없다. 이같은 사실에서 신라사경으로서 이 無垢淨光經이 신라 塔內 등에 藏置된 사실은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중의 一例가 近年에 서울 民間에 수장된 사실은 다행이다.

### (1) 無垢淨光大陀羅尼經 一軸斷簡 서울 古書博物館 소장. 年代 9세기추정

이 件의 由來는 전혀 알 수 없으나 보존상태로 보아서 佛腹藏品으로 추정된다. 白紙墨書의 卷軸本으로서 經名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다. 1行17字로서 신라 寫經體의 筆致를 따르고 있다. 佛國寺塔에서 발견된 것과 經名은 같으나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卷首에는 絹織物 바탕에 金泥로써 그린 그림이 달려 있어서 주목된다. 畫題는 墨書로 左右端에 각기 「世尊靈山說」 또는 「多寶塔現佛」이라 있어서 佛國寺에서 釋迦·多寶 兩塔의 對立相으로서 妙法蓮華經의 見寶塔品에 보이는 釋迦·多寶常住澄明의 장면이 아닐까 한다. 이같은 신라사경에 달렸던 金畵例는 이미 初出의 신라사경인 華嚴經(湖岩美術官)卷軸本에서 同伴되어서 先例를 알고 있거니와 이것은 그에 이어서 두번째로 볼 수 있는 貴重例임을 알 수가 있다. 동시에 新羅佛畵의 확실한 筆跡으로 오늘에 전달된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림의 크기는 縱 27cm 橫 24cm로서 右에 釋迦佛의 坐形이 안치되었는데 坐像의 頭上에는 꽃으로 半圓으로 둘러진 天蓋가 있으며 佛像의 頭身光은 모두 거의 圓形으로서 그 形式이 同代의 石造品과도 對比할만하다.

左便에는 雲上의 化佛과 飛天이 둘러 있는 그 中央에 三層石塔이 솟아있다. 이 塔의 양식은 單層基壇위에 三層의 屋蓋와 塔身을 쌓았고 塔頂에는 相輪部가 꽂혀 있어 各部分을 具備하고 있다. 塔身이 매우 細長하여졌고 옥개 또한 平薄한 經快感을 지니며 받침 三段임도 그 年代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基壇이 擘柱一柱로 兩分되고 각기 神將立像을 1구씩 조각하였으며 塔身에는 佛像을 새겨서 塔에 대한 裝飾手法이 크게 流行하였던 時代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서도 이 作品이 신라의 것임을 말할 수 있는바 或人은 이 佛畫를 가리켜 中國의 作이라함은 부당하다. 그리고 下方으로 내려와 神將 菩薩등의 立像이 있고 다시 最下中央에는 方形으로 구획된 蓮池가 있다. 全面에는 塔像을 두고 사이사이에 飛天의 墜來形과 天花가 그려졌으며 下段의 地面에도 많은 天花가 그려져 있다. 絹面은 長久한 歲月에 裂線과 上下端의 脫落을 보이며 金色 또한 거의 脫落되었는지 또는 變色되어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그리고 佛前에 배치된 卓子위에는 舍利壺와 그 左右에 各一의 香爐形이 놓이고 卓子를 덮은 花紋襪가 垂下되어서 左右에서 曲線을 이루는 樣式같은 것은 卓上의 配置方式과 함께 경주 錫杖洞 金藏寺址에서 發掘된 圓形石柱(지금 경주박물관소장)에 浮刻된 菩薩舍利禮拜圖에 보이는 中央의 舍利器 배치와도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곳에서 引用되어야 할 玩堂 金正禧의 경주 昌林寺石塔에 관한 다음과 같은 識語가 있다.

甲申春, 石工破慶州昌林寺塔, 得藏陀羅尼經一軸, 盛銅圓套, 又有銅板一, 記造塔事實, 板背並記造塔官人姓名, 又有金塗開元通寶錢, 青黃燐珠, 又鏡片銅趺, 爲鑄銅者所壞, 軸面黃絹金畫經圖.

이 玩堂의 記錄은 朝鮮純祖24年(1824年)에 경주 昌林寺塔이 파괴되어 그 내부에서 銘文이 새겨진 銅板과 기타 舍利具 등 貴重品이 發見되었을 때의 것이다. 이때 大中九年(신라 文聖王 17年 서기 855年)銘의 銅板 이외에 이곳에 注目되는 品目은 陀羅尼經 一軸인바 이것은 銅圓套에 들어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陀羅尼經 一軸」이란 곧 신라의 寫經으로 그 經名이 곧 「無垢淨光大陀羅尼經」임을 알 수가 있다. 昌林寺銅板銘은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인 바 이것은 이 破塔때 어떠한 사정인지는 不明하나 多幸히 玩堂에 의하여 雙鉤文의 塔銘이 模寫되어서 寫經一卷의 首尾와 같이 書帖으로 만들어졌다. 그 후 이 書帖은 日政때 日本人 鮎具房之進의 所藏한 바 되었고 그후 다시 故孫在馨씨가 入手하였다가 그의 死後에는 서울의 故孫世基의 손으로 옮겨갔다고 들었다. 위에 引用한 玩堂識語는 이 書帖末尾의 餘白左端에 보인다.

昌林寺塔에서 甲申春에 發見된 신라사경을 注目하고 玩堂은 「銅圓套」에 들어있었다는 사실과 그 軸面에는 黃絹에 金泥로 그려진 經圖가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絹本金畫로서의 佛畫는 이때 昌林塔에서 出土된 것은 아니며 새로 發見된 卷軸本 無垢淨光經 卷頭에 있으나 經名과 年代와 金畫經圖에서 서로 일치되고 있는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나아가 이 寫經이 昌林寺塔의 경우와 같이 塔銘板을 同伴하지 않아서 그 年代를 確定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民間所藏의 上記한 孫氏所藏本을 조사하여 그곳에 보이는 無垢淨光經 一卷과 이곳에서 처음 소개하는

신라 無垢淨光經 一軸이 신중히 比較考察되어야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신라의 白紙墨書經을 最近年에야 初見하고 그 華嚴經 二軸의 出現을 고맙게 여긴바 있었다. 이제 다시 신라의 作品으로 추정되는 新例가 入手되었는바 卷軸本임과 經圖가 同伴되었다는 사실에서 옛 昌林寺의 그것과 일치되었다 하더라도 兩件이 모두 完秩의 유품은 아니며 또 그 傳來經緯에 대하여 아무런 知見이 따르지 않는았다. 古代의 文化遺産이 關聯資料를 同伴하지 못하니 바꾸어 말하면 戶籍을 喪失하고 出世經緯에서 隱蔽와 歪曲을 겪으면서 暗暗裏에 換金되는 우리의 風土에서 이들을 올바르게 解明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마땅한 價値賦與와 榮光의 자리를 回復시켜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日政때의 受難은 且置하더라도 우리손에 의한 古文化財의 오늘의 迫害는 또한 매우 불행한 일이다.

### (2) 白紙墨書 金剛般若波羅蜜經 卷軸本

이것은 最近年에 淸州地方 商人을 통하여 서울 古書博物館이 入手한 것인데 앞 部分이 없으나 現長 약 5m이다. 紙質은 한때 白麻紙라고도 하였으나 佛國寺塔發見 無垢淨光陀羅尼經과 같이 楮紙로 밝혀졌다. 體裁가 原形을 잃었는데 現在 仮表具된 상태에서 墨色이 鮮明하여 字體를 判定할 수가 있다. 먼저 注目되는 것은 他例와 달리 朱色の 野線이 그어져 있는 사실이며 둘째는 字體에 中國의 歐陽通의 書法과 닮고 있어서 日本에서 전래하는 最古의 書蹟이라는 金剛場陀羅尼經(日本國寶, 京都個人所藏)과 곧 比할만 하다. 그렇다면 刊記(686年)가 卷尾에 보이는 이 日本의 最高經과 거의 年代를 같이하는 우리의 金石文으로서의 연기의 碑岩寺碑像이나 鳥致院瑞光庵에서 전한 癸酉銘千佛碑像(673)(公州博物館)의 造像銘과 그 字樣 등이 比較될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의 金剛場陀羅尼經의 跋記에 보이는 發願文의 내용이 우리의 碑像과 거의 同一한 사실이나 日本의 最高寫經이 일찌기 日本 大阪地方으로 移住한 사람들의 손에서 書寫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그 서로의 類似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新例의 年代가 신라統初인 7世紀 後半으로 추정되어서 또한 우리나라의 最古書蹟으로 報道되기도 하였다. 未公開로 있어서 앞으로 精密한 檢討가 따라야 할 것이다.

### (3) 白紙墨書 金光明經 卷2

이것 또한 最近年에 商人에 의하여 上京하여 個人이 入手한 것이다. 卷首가 缺失하고 損傷되었으나 後部는 良好하다. 野線은 分明하지 않으나 朱를 사용하고 있어서 上記한 金剛經의 경우와 동일하다. 卷末에 細字로 다음과 같이 一行墨書가 남아있어 書寫年代를 알 수가 있다.

唐大中十二年 九月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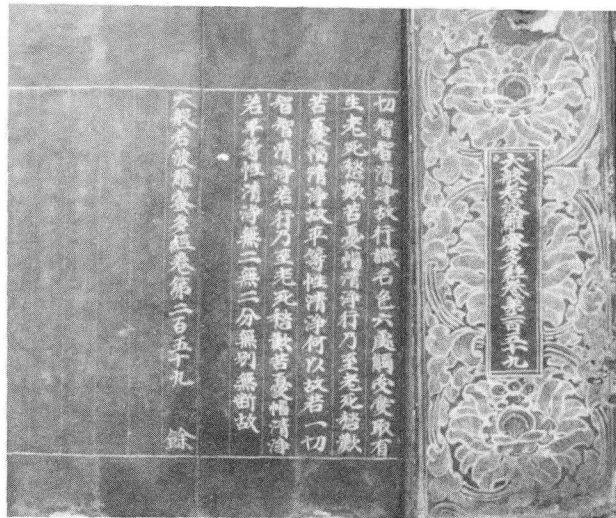
用紙는 麻紙라고 한다. 國內에서의 傳來는 佛腹藏으로 추정된다. 大中은 唐 宣宗年號로서 12年은 신라 憲安王2年戊寅 서기 858년에 해당하고 있다. 上記한 신라 昌林寺塔銘이 大中9年이므로 불과 3年の 差異밖에 없다. 兩者의 比較考察이 期待된다.



〈圖 1〉 紺紙銀泥華嚴經 卷三十四(變相圖) 湖林博



〈圖 2〉 大佛頂首楞嚴經 卷七(變相圖) 湖林博



〈圖 3〉 大般若經 卷二百五十九(變相圖)祇林寺